

93
2/15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씨와 안종택
검사(현 인천지검 부장)를 독지폭
행(고문) 등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방씨는 고소장에서 "안기부에서
수사받은 50여일 동안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받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심한 고문 후
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쇠 기름' 공판 증거조사 진행

사람몸에 해로운지를 둘러싸고
4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쇠
기름라면' 사건 20차 공판이 14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
장 곽동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성고문' 문귀동씨 또 불법영업

○...부천시 성
고문사건으로 5
년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뒤



부천에서 단란주점을 개업했던 문
귀동씨가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해오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
됐다.

14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부천
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문씨는
올해 10월18일 경기도 부천시 심
곡2동 190-10에 '가빈'이란 상호의
단란주점을 개업한 뒤 칸막이를
설치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유혹주점 형태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지난 11월19일부터 내년 1
월26일까지 68일간 영업정지처분
을 받았다. 부천/김영환 기자

**'서경원의원사건' 방양균씨
안기부 수사관·검사 고소**

[전주=임석규 기자]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전
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방양균(38·
당시 서 의원 비서관)씨가 지난달
27일 구속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1993년 12월 25일 (토요일)

거리마다 징글벨소리가 울려 퍼지고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번쩍이지만, 과연 우리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높아가고 있고, 차가운 겨울철 준비를 하지 못한 민중들의 주름살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실업자들, 조악한 근로조건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육체를 파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소망없이 방황하며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불우이웃돕기운동을 펴는 등 관심을 쏟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의 교회에 나오는 문국진씨 (34) 가정이 바로 그러

빛과 어둠 사이에서



최 의 팔
(침암교회 목사)

한 경우이다. 문국진씨는 7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입학하였고, 1980년 봄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1986년 소위 '보임 다산 사건'으로 수배중에 있다가 자수하여 청량리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정신분열적 발작증세를 보였으며, 이후 그는 거의 1년에 한번 정도로 발작증세를 보였고, 올해는 지난

6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문국진씨의 의학적 병명은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다. 이것이 고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 문국진 개인의 인간적인 생활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해인이라는 네살난 딸을 둔

이와 노는 자기 애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누가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고문에 의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해 알려진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90년 8월에 분신자살한 노동운동가 최동씨, 인천교대생 최영미씨, 전 민청련 부회장 이을호씨 등 극히 소수이다. 실제 고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가족과 일

서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치료를 위한 병원과 센터가 가동중이며, 이를 통해 고문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문은 국가적인 범죄이며, 근절되어야 할 인류문명의 최대의 최악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추악한 전쟁이란 용어로 국제사회에서 규정된 이런 고문과 고문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문과 고문후유증의 실상을 조사하고, 고문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정신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문피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음지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문피해자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부인 윤연옥씨는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한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잠자는 애를 꺼안고 남편 몰래 운적도 많습시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한 적도 없습시다. 그러나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더이상 주저앉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방을 빼달라고 하고 어떤 아이엄마는 우리 딸아

부 친지들만 알고 쉬쉬하는 턱에 알려지기 힘들다. 그것은 가족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의 이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위에서 고문과 관계된 여하한 언행이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다시 고문의 기억을 되살려내고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들의 배려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구에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 첫회 출연

「주한미군 운동본부」 공동대표 전우섭 목사, 민가협 남규선 총무 등 출연 예정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에서는 27일(월)부터 5일간 93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송년특집을 마련하여 방영 중이다.

이양원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인권상황 송년특집 첫날인 27일에는 고문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가 출연하여 문씨에 대한 소개, 현 상황, 결혼하게 된 과정, 고문후유증에 대한 소송제기 진행상황등에 대해 20여 동안 대담을 가졌다.

윤씨는 "현재 문국진씨는 86년 청량리경찰서에서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6개월째 고려대 부속병원에 입원중이다"고 현상황을 전하였다. 문씨는 지금 진행

중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소송과정으로 오늘중으로 법원이 지정한 연대 병원에 15일 이상 입원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오늘과 내일」 송년특집은 제1부 올해 5대뉴스에 이어 제2부인 올해 인권상황 점검은 7시 40분부터 8시까지

방영된다.

오늘(28일)은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전우섭 목사가 나올 예정이며, 29일 민가협 남규선 총무가 나와 양심수 현황을 전한다. 30일·31일에는 배병성씨와 김기용 순경을 출연시키기 위해 교섭중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성탄을 맞이하여 단행된 이번 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는 김영삼 정부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금번에 이루어진 1천3백43명에 대한 특별조치에 공안, 시국관련자는 단지 44명뿐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만기일이 3-4일 남은 양심수가 4명이고, 40% 이상이 2개월내 만기석방될 예정인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문민정부하에서도 190여명이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고 현재도 양심수가 340여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진정으로 민주화와 국

민대화합을 간절히 바라는 양심수 가족들과 은국민에게 크게 실망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의 사면조치는 특정 정치인을 사면, 복권하기 위해 소수의 양심수를 더불어 석방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크다. 대표적인 양심수라 할 수 있는 문익환목사, 김근태, 장기표, 이창복씨 등이 사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또한 지금까지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인권단체들이 석방운동을 벌여왔으며 문민시대를 여는 데 초석이 된 윤석양씨와 군사독재정권의 희생양이 된 강기훈씨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처사였다.(중략)

정부는 속히 340여명의 시국관련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550여명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실시하여 새해부터는 양심수 없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993. 12. 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

그동안 「인권운동 사랑방」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인권운동 사랑방」 구성원들은 그동안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권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하루소식>을 위해 복사기 구입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연수 이기욱 이덕우 이오영 박연철님에게 지면을 빌어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복사기로 「인권운동 사랑방」이 비축한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공 판 안 내 ◆

□28일(화)

- 정용후, 특가법(뇌물), 서울형사고법 302호, 10시 선고
- 김석,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선고
- 유승운, 특경가법위반, 서울형사지법 318호, 10시 7회
- 이상욱,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423호, 2시 속행
- 삼양식품외, 보건범죄단속법, 서울지법 318호, 3시 20회
- 권혁명,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311호, 15:30 선고

□29일(수)

- 황석영, 국보법, 서울형사고법 302호, 2시 1회
- 김종인의, 특가법(뇌물), 서울형사고법 302호, 3시
- 김영록, 특가법, 서울형사지법 311호, 10시 1회

□30일(목)

- 김승연, 외국환관리법, 서울형사지법 320호, 10시 1회
- 박동수외, 국가법, 서울형사지법 423호, 3시 속행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고문용인 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 요구

민가협 등 8개 인권단체

민가협, 전국연합 인권위, 민변 등 8개 인권단체는 28일 ‘고문용인 발언’을 한 최형우 내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 장관은 지난 12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말’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상문제라면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라는 질문에 ‘물론이지’라고 대답하여 현 ‘문민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고문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최장관의 사과, 이근안의 즉각적인 검거,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한 가입 등을 요구하였다.

고문후유증 국회에 청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은 29일 국회에 고문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대책과 생활대책 등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낼 예정이다.

한편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문국진씨는 신체감정을 위해 6개월 동안 입원중이던 고대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다.

성명서 /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용인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사상문제라면 고문해도 된다.”

이 발언은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비록 최형우씨가 내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도 해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치명적인 고문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중략)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술하게 행해진 고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과거청산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현정부 출범후에도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배병성씨를 4일간 잠을 안재우는 등의 고문으로 범인으로 몰았으나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안기부가 김삼석·김은주씨를 수사하면서 잠을 안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성기호 문까지 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중략)

우리는 고문은 비인간적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과 제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을 다짐하면서 출범한 ‘제2기 내각’이 인권침해 방지와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에 가장 앞서야 할 내무부장관에 감히 ‘공개적으로’ 고문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자를 임명한 의의를 의심하며, 또한 국제화, 미래화를 특히 강조하는 현 정권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국민에 대한 고통의 강요 및 인권경시를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국민 인권보호에 앞서야 할 신임 최형우 내무장관은 공개사과하고, 정부는 인권보장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구체적인 인권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과거 음습했던 고문의 기억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을 즉각 구속하라.
3. 정부는 연말에 가입한다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2월 28일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 사랑방 / 천주교 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2·3면)

- 1 이인모 노인 43년만 귀향
- 2 김기웅순경, 배병성씨 억울한 옥살이
- 3 UN 인권위 차별소위, 종군위안부 특별보고자 임명
어제는 산업역군, 오늘은 산업폐기물-원전폐이온
pc통신까지 구속시킨 국가보안법의 위력
- 4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
- 5 UN 인권위 ‘실무그룹’ 장의균·김성만·황대권씨 자의적 구금 인정, 석방 권고
0.7%만이 기소되는 주한미군 범죄
- 6 강기훈씨 국정감사 증인, 홍성은씨 기자회견 무죄석방 주장
유엔 세계인권대회 25년만에 열려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밝은 일들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78호는 새해 1월 5일(수)에 발행합니다>

파괴돼가는 삶과 함께 할터

고문후유증 남편과 함께 해온 윤연옥 씨

이 땅의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괴로움들, 미발달한 우리의 운동, 나약한 육체, 이 사회가, 이 생존이 강제하는 하루하루의 어김없는 삶의 굴레, 당신은 누구 못지 않게 지금까지, 힘들고 벽차고 무거운 역사의 굴레를 온몸으로 버텨온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마시오.” (93년 6월 23일 문국진씨가 아내에게 쓴 글) 문국진, 올해 나이 34세. 문

국진씨는 엄마 아빠의 속정을 느껴가며 한창 예쁜짓을 하는 천진한 딸아이와 이제 절망하기에도 지친 아내를 뒤로하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서야 했다. 병원에 입원하기 3일전 문국진씨가 아내에게 쓴 글은 그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건강한 젊은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씨는 자신이 눈 오줌을 마시고 발가벗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등 서서히 파괴돼 갔다. 집안에 도청이 돼 있다고 늘 불안해 했고 자신의 아내를 안기부침자로 생각하고 목을 조르는 일이 많아졌다.

조그만 일에도 흥분한 문씨는 길길이 날뛰었고 아내 가족과 어린딸이 울고있는 가운데 경찰에 의해 끔

공무원 정신병원으로 끌려가야만 했다. 그리곤 면회간 아내에게 ‘몸이 피로해서 어찌느냐’며 썩한 눈으로 우는 일도 잊지 않았다.

건강한 젊은이의 정신과 정신분열증을 서로 오가는 문씨의 이중생활은 1986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된다.

86년초까지만 해도 출판사 편집장으로 열심히 살았던 문

찰서 유치장에서는 자신이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 경찰들을 관찰하는 등의 정신분열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문씨에게 돌아온 경찰들에 의한 구타뿐.

한달후 성동구치소로 이감됐지만 병세는 더욱 짙어만 갔다. 공공무원체 면회장에 나와야 했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는 부모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씨는 그해 3월 일명 ‘보임·다산사건’으로 불리는 조직사건에 연루돼 전국에 지명수배된다.

지명수배는 경찰의 압력으로 인한 이사와 부모님 생업에 대한 방해를 몰고 왔고 참다못한 문씨는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아내 취조를 받기 시작한다.

취조를 받은지 3일후 문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면회간 부모가 사간 통담을 보고 “통담같이 고문시키려고 사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다가 하면 청량리 경

독방에 방치된 채 전경들의 군화발과 함께 구치소내 정신병동으로 보내진다. 10일정도의 구치소내 정신병동생활은 문씨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계속되는 정신분열과 군화발사이에서 징벌방에 들어간 문씨는 4일동안 온몸이 공공무원과 동시에 얼굴에 시커먼 수건을 뒤집어 쓰고 쪼그리고 울기만 했다.

그후 인권위 변호사의 도움으로 12월 12일 중곡동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문씨를 취조했던 경찰까지도 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일련의

과정은 머리가 좋고 심성이 뛰어나다는 건강한 한 젊은이를 서서히 파괴해 갔던 것이다. 그후 10여년에 걸친 그의 청춘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반복된 생활이었다. 이런 생활속에서 정상인으로 돌아올 때면 문씨는 자신에 대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삶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나, 문국진이라는 처절한 인간의 고뇌와 육체적, 전 존재적 고통 속에 동참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이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일 것이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소.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과 나의 순조롭지 못한 세월들!”

‘위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

는 윤씨의 얼굴엔 남모르는 강단이 서려 있었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내남편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겪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더이상 주저앉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방을 빼달라고 하고, 어떤 아이 엄마는 우리딸아이와 노는 자기애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한가정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호소하는 윤연옥씨.

그러나 윤연옥씨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물고문으로

못도 아닙니다. 남편의 고통은 우리모두가 나눠져야 할 짐입니다. 국가에게 있어서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일수 있지만 개인이 지기에는 너무도 벅찬 일입니다. 그시대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모두가 이 아픔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더이상 남편의 고통을 한개인의 고통으로 방치해선 안됩니다”라고 말하곤 지그시 입술을 깨문다.

고난받는 한 사람을 껴안고 지키고 서있는 부인 윤연옥씨의 믿음은 오는 11월 13일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으로 결실을 맺는다.

또한 문국진 대책위에서는 지난 13일자로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해둔 상태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 자신의 신념을 껴안고 지켜온 사람들에게 대한 재조명작업과 더불어 명예회복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뒤에는 아직까지 명예회복은 커녕 고문의 상처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있다.

문국진씨는 고난받는 이 땅의 사람이 분명하다. 또 문국진씨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려는 그의 부인 윤연옥씨는 고난받는 이 땅의 사람임이 분명하다.

(백중현)

군사정권시절 고문으로 정신분열증세 보여 남편의 정신병 알고도 고통에 동참 결의

에’라 일컬어지며 10년의 청춘을 앓아간 고문 자육은 극도의 공포속에서 주변의 조력을 받지 못한 한 인간에게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상처를 남겨 놓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병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라는 무서운 정신분열증세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에 의해 파괴돼갔던 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 윤연옥씨. 그는 문씨가 두번째 병원에 입원했을 무렵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문씨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결심한다. 그리고 그러한 뜻은 88년 9월 문씨와의 결혼으로 맺어진다.

행복한 결혼생활도 잠시. 또 다시 문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린 딸을 껴안고 소리없이 운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라고 말하

숨막찬 순간. 또는 전기가 생체를 관통해 의식을 잃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쁘구려’라고 말하는 문씨의 위로에 흐트러졌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껴안게 된다.

윤연옥씨는 남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의 잘



문국진씨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윤연옥씨의 결심은 1988년 9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했다.

● 국제인권소식 ●

EU, 외국이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가져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드라 이그 플린 사회분과 집행위원은 지난 2월초 집행위에 영주권을 얻어 유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 제3국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며 EU 12개 회원국을 마음대로 여행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EU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 등은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인을 포함한 유럽내 9백만 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플린의 제안은 1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가능한데 영국·독일·프랑스·덴마크 등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유럽국가들이 외면해온 외국이민자들의 동등한 권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의의를 갖는다.

유럽, 인종주의 희생자 증가 유럽에서 72명 외국인 희생-93년

93년 한해동안 유럽전역에서 72명이 인종주의에 희생되었다고 최근 영국의 인권단체 「인종주의와 과시즘에 대한 반대운동(CARF)」이 보고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는 독일에서 발생했는데 92년에 25명, 93년에 52명이 피살되었다. 또 영국에서는 92년에 12명이, 93년에 6명이 피살됐다.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이민이나 난민에 대한 살해행위는 주로 극우단체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범죄는 유럽의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예산의 축소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럽의 실업자수는 2천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의 한 관계자는 2천년때까지 유럽대륙에는 유색인종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재일한국정치범 석방 전후처리 해결 요구’

재일인권단체 19-21일 단식농성도

22일 일본의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공동대표 : 김태명·김윤철·고정신, 이하 민권협)는 김영삼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제출한 요망서에서 △재일한국인정치범의 석방문제 △전후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등에 관해서 한일 양정부가 한일수뇌회담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표들은 당일 오전 11시 주일한국대사관을 방문하고 박영관 법무협력관, 오후 3시 45분에 일본수상관저를 방문하여 하토야마 내각관방부장관을 면담하고 위의 요망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손유형씨를 지원하는 모임」과 「관서 한국정치범 구원연락처」는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방문(24일-26일)을 앞두고 19일-21일까지 3일간 손유형씨를 비롯한 재일한국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오사카 세이와 교회에서 벌였다.

이들은 단식에 들어가며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난 3월 2일 한국을 방문한 호소카와 수상은 ‘한·일 신시대 개막’이라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한국의 감옥에는 손유형씨를 비롯한 7명의 재일한국인이 있다. 진정한 일한 신시대의 출발은 이들의 석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단식 중 매일 아침집회를 가진 뒤 일본내 한국정치범 구명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물을 역전과 주택가에서 배포했다.

단식을 마치며 이들은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을 일본에 광범위하게 호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단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손유형씨를 지원하는 모임」 등은 일본 정당과 도이다카꼬 중의원의장, 일본 외무성과 주일한국대사관 등을 방문, 면담을 통해 한국정치범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오는 29일 한국의 최병모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장)를 초청, 한국의 인권상황을 듣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씨 신체감정서

고문피해자 문국진씨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궁 기(연세의료원 정신과)씨는 신체감정서에서 “문국진씨가 86년 이전에는 기왕증(이전의 동일한 병력)이 없었으며, 문씨의 정신분열증 발병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씨에 대한 신체감정은 93년 12월 28일부터 94년 1월 12일까지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가 지정한 연세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인 남궁 기씨에 의해 이뤄졌다.

문씨는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고문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해서 노동능력 등을 상실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는 ‘보임·다산 사건’으로 86년 10월 27일 청량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47일 동안 구타 등의 고문을 받아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중국동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다가 87년 2월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조정희씨 단식해제

지난 21일부터 경기도 이천군 육군장호원교도소에서 ‘특수동’ 복역자들에게 대한 종교활동 보장, VTR시청허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조정희씨가 23일 단식을 해제했다.

조씨는 교도소측이 자신에게 종교활동과 VTR 시청 등을 보장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단식을 해제한 사실이 23일 조씨를 면회한 어머니를 통해 밝혀졌다.

◆ 바로잡습니다 ◆

3월 23일자 <인권하루소식>의 ‘양심선언 조정희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기사중 21일 조씨를 면회하면서 조씨의 아버지 등이 헌병대에 끌려나갔던 것이 아니라 조정희씨가 끌려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알 림 ◆

□제28차 민가협 목요일집회

·일시 : 24일 오후 2시, 탑골공원앞
·주제 : 창작·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꺼지지 않는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투쟁 1년

전해투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 농성후 민주당사에서 계속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7일로 투쟁 1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전해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제7차 해고노동자대회'를 갖고 해고노동자의 복직문제 해결을 촉구하게 된다. 이날 대회를 기점으로 봄철 임금투쟁과 결합해 싸울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해고자복직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전해투 대회협력부장 인터뷰 2면 참조).

92년 4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출발점으로 해고노동자 문제를 전국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전해투를 결성하고, 그해 4월 7일 36개 사업장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4월 7일부터 시작된 단식은 23일까지 18일간

계속되고 그과정에서 9일 「전해투 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5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원상회복 촉구 집회를 가진뒤 마포 민주당사에서 2차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특별법제정을 촉구하였다.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38일간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례법 개정을 위한 삭발·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10월 13일 20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투쟁을 벌인다. 10월 19일 농성장을 마포에서 여의도 민주당사로 옮기고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순회 투쟁을 펼쳤다. 올해 3월 7일부터 전국사업장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출근투쟁과 텐트농성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A, 출판인 양심수 선정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3월 구속된 일빛출판사 사장 이성우(38)씨와 편집부장 김병학, 힘출판사 사장 김연인(32)씨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6일 요구했다. 이씨들의 구속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엠네스티는 밝혔다. 또 엠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

영삼 대통령등 정부관련기관에 이들 세명이 경찰수사기간동안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높는데 우려를 표시하는 편지를 쓸 것을 권고했다.

이성우, 김병학씨는 지난 3월 18일, 김연인씨는 지난 3월 23일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연행되었다.

민가협 30차 목요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7일 '조작간첩 장기수의 석방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열었다. 30번째인 목요집회는 삼척가족 간첩사건 관련하여 수감중인 김태룡씨의 누나 김순자씨, 정영씨의 딸 정상숙씨 등이 참가했다.

◆ 알 림 ◆

□살인누명 김기웅순경 고법(파기환송) 선고공판

·일시 : 4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형사1부 309호

□부산 '노동자를 위한 연대' 결성식

·일시 : 4월 8일(금)오후 7시
 ·장소 : 노동자를 위한 연대 사무실
 ·전화 : 051-803-8746, 051-802-3084
 ·팩스 : 051-803-4417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674-6 한일식당 3층

□월간인권 4월호-격월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주요내용 : 방콕·홍콩지역 운동단체 방문기(이운경)/아시아 여성 인권법정 참관기/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필리핀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균)/삼청교육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요구안(홍낙표)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일시 : 4월 11일(월) 4시-6시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주최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민변, 인의협
 ·문의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796-8364, 5)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독자 여러분에게 배포중입니다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올해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메세지가 4명이나 깨
이들간의 지혜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감독의 특징으로는 김용용(53)
감독을 빼놓고는 7개 구단 감독 모두
30~40대로 나이층이 한층 젊어졌다
는 점이다. 지난해 한화(전 빙그레)를 맡
았던 김영덕(58) 감독과 쌍방을 신용
균(56) 감독이 물러났고, 롯데는 강병
철 감독의 후임으로 30대의 김용희(39)
감독 체제가 들어섰다.

현재 가장 느긋한 입장은 해태의 김
용용 감독. 83년부터 팀을 맡아 7번 우
승을 차지했으며, 올해는 전력이 지난
해보다도 앞서는 평가속에 또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팀을 맡아 한국시리즈 준우
승까지 끌어올린 삼성의 우용득(44)
감독도 이제는 경기운운의 미숙한 티
를 벗고 기필코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어붙어있다고 의욕을 보였다.
올해 사령탑이 바뀌면서 팀 분위기
가 변한 팀은 한화·롯데·쌍방울.
한화의 경우는 다크호스로 지목되던
서 4강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짐쳐지
기도 한다. 강병철 감독이 계약기간이
 끝나 한화로 옮기면서 부상 선수들의
회복과 함께 팀 사기가 크게 고조됐기
 때문이다.

롯데는 '미스터 롯데' 칭호를 가진
김용희가 사령탑에 오르면서 '젊은 거
인, 싱싱한 롯데' 구호를 내세우며 상
승무드를 유도하고 있다.
쌍방울의 한동화 감독도 화려한 공
격야구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면서 김
광림·박철우 등 타력 보강에 힘을 기
울였으며, 정동진 감독의 태평양도 호
조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전력이
다른 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김학준 기자 (끝)



올해 프로야구는 신인감독 3명
의 출현으로 나이층이 젊어져 예
년보다 치열한 전략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위로부터 김용용·우용
득·윤동균·강병철·김용희 감독.

회 여중
날려 솟
지
테니스
지승호(사
제12회 아
국가대표
1장식의
지승호는
트에서 별
경기서 윤
까지 가는
힘겨운 승
팀에 합류
여지부의
정(중앙고

'94 대우 채용박람회

한겨레 생활광고

상세한 것은 생활광고담당자 앞
☎ 710-0417~8 (F)710-0410
으로 상의바랍니다.

구인

전통찻집 새주인 찾음
43평, 28평 각15천만원, 5천만원
연락처 02)877-5537

입림

민족문화의 올바른 계승 발전을 위한
종물교실
4월 11일부터
종물초급: 월, 목, 토 7:30~9:00
종물중급, 고급, 상모, 설장교반
문의: 238-6111
소리마당

제3차 국토기행

내용: 4.3항쟁 역사현장답사
비디오관람, 강연
그리고 한라산등반
출발: 4/29(금) 20:00(김포공항)
도착: 5/1(일) 19:30(김포공항)
회비: 13만원
모집인원: 40명
신청: 온라인 입금순으로
주최: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주)
시민연합회 '길벗'
대표전화: 253-2530

관리처분계획

도림구역 제18지구 재개발사
공람공고합니다.
1. 시행지구: 도림구역 제18지구
2. 시행규모: 대지 8,172.1㎡, 연
3. 공람기간: '94. 4. 9~'94. 5.
4. 사업시행자: 서울시 중구남대문
(주) 대우대표이사
5. 변경내용: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6. 공람장소 및 문의처
• 공람장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
(주) 대우개발영입
• 문의처: 259-3258, 3715
7. 위 공람기간내 공람치 않을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994년 4
시행자: 서울시 중구
(주) 대우대표이사

모집

참고서 출판
수화 전문편집자: 1명
수화 전문교정자(프리랜서): 2~3명
경리(경력자 우대, 여성출신자): 1명
기간: 4월 12일까지
도서출판 디딤들 (323-9166)

「한국농업신문」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견
편집국 기자 (취지·편집)	○명	대학(전문대 이상)졸업자 로서 병역을 필한자 (경력자 우대)
지사·지국 (미설치지역)	○명	농·수·축·임업관련자 우대
일반·광고	○명	고졸이상, 병역필한자

· 채용서류: 1) 자필이력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자기소개서 각 1통
· 접수기간: 1994. 4. 4~14일
· 제출처: 서울 동대문구 청량동 234-212
한국농업신문 출판부
· 이력서 상단에 전화번호 기재
· 채용권 서류는 반환치 않음

주식회사 한국농업신문
전화: 968-0266~8 FAX: 968-5089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발제1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적도의 현황
전해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제2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
양길승(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토론: 오완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우섭(민주당 정책실장)
일시: 1994년 4월 11일(월)
장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전철 교대역 하차, 전화: 588-6944)
문의: 796-8364, 5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원: 민주당인권위원회 / KNCC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인권운동사랑방 /
연세대총학생회 / 전국대학민주동맹대표자협의회
※ 고문피해자 또는 후유증을 앓고 계신분은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96-8364)

김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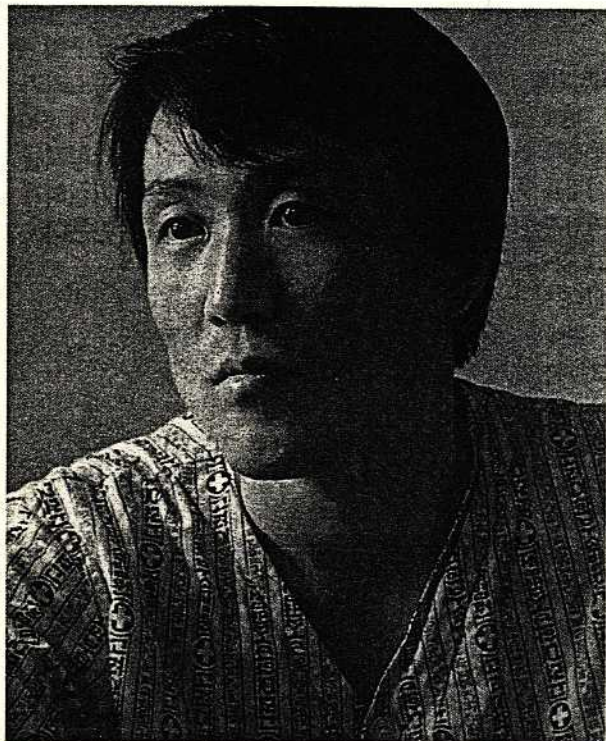
추천
'93. 8월
• 전국대결
• 전국고결
☎ 93검정고시 10
한글반 중급반 고결반 대결반 [신
새벽·주간·야간·일요일
신설동로타리 922-6703, 928-4

수도

고문, 삶을 파괴하는 제도폭력

문국진이 살아내는 '고문의 삶'

오숙민(합계걸음 기자)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해 있는 문국
진씨.

축망받던 젊은이 문국진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인가?”

이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물론 명확하게 ‘그래야 한다’고 답을 한다. 그러면서도 약자에게 휘두르는 강자의 폭력을 늘상 보았기 때 문인지 무덤덤하게 반응하며 남의 일인양 뒷전으로 돌려버린다.

그런데 남의 일인양 먼 거리에서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한 젊은이가 갇힌 채 잊혀질세라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세대 철학과 79학 번으로 ‘화다’ 출판사의 편집부장을 지냈던 사람.

“아이큐 130이 넘는 우수한 두뇌와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으며 또한 필력이 뛰어나 사회에서 한 몫을 단단히 할 사람”. 그의 담당의사는 문국진(35)씨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 의사의 말처럼 문씨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었다. 이런 그가 지금은 다섯번째 재발한 발작증세로 고대 구로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처지가 되었다.

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과 피해망상, 인간관계 망상과 편집증. 상태가 좋을 때는 직장도 다니고 연구활동도 하고 글을 쓰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다시 재발하여 입원을 되풀이한다.

이번 발작도 사소한 일에서 터졌다. 지난 93년 6월 26일, 주인집 손녀 딸이 가지고 온 인형을 본 문국진씨는 그것이 부인 윤연옥(33)씨가 버린 것인 줄 모르고 딸아이 것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흥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주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부수는 난폭한 행동을 보인 끝에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윤연옥씨의 말을 빌자면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의 그의 모습은 유머감각도 있고 책을 펴내고 글을 쓰면서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다져가던 ‘선비형’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86년도에 당한 끔찍한 사건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보임·다산사건’

사회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았던 그해, 출판계에 ‘보임·다산사건’이란 조직사건이 터졌다. 이때 문국진씨도 수배됐고 수배생활의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7개월 만인 86년 10월 말, 청량리서에 지수를 한 뒤 구속되었다. 이 시기 청량리서와 성동구치소에서 보낸 60여일 동안에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 문

국진씨 부모님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들었던 윤연옥씨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

“구속될 당시에 건국대 점거 농성사건 때문에 유치장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근데도 국가 보안법에 관련되어 독방에 가두어놓고 수시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자백을 강요하고, 북한에서 나온 책자를 보여 주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계속 묻고 뭘 써내라는 거예요. 정신이상 상태를 보이니까 일부러 미친 척한다고 진정들이 때린 거죠. 성동구치소에서는 더 심했어요. 관 크기만한 ‘징벌방’에 혼자 가두고 시켜면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손발을 묶어 놓은 거예요. 밥을 넣어 주어도 먹을 수 없죠. 누울 수도 없고, 나홀동안 울고만 있었다고 말하더라구요.”

정신질환 증세로 구속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석방된 문국진씨는 87년에 병세가 재발해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구속 전에 그를 알고 있던 윤연옥씨는 ‘잠깐의 충격으로 나타난 현상’이니 차차 나아지리라 생각하며 88년 그와 결혼을 했다.

8년 세월 남편의 고통 겪어내고...

하지만 딸 해인(5)이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 생활도 잠깐, 수시로 병이 재발되어 문국진씨가 완전히 낫는다는 희망은 버려야 했다. 그대신 윤연옥씨는 남편의 고통을 겪어내고 8년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그러다 그 고통이 가족의 고통이 아닌 ‘알려야 할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바꾸었다.

문국진씨가 정신질환이라는 게 알려지면 여러가지 본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어, 남편과 의논도 못하고 혼자 결정하려니 갈등이 많았다. 그러나 더이상 가족들 힘으로 병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가족들만의 고통으로 참아내기엔 너무나 억울했다.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에 약간의 희망을 걸었고 이러한 그의 결심은 93년 6월 13일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뒤로 구체화되었다.

그 노력으로 공권력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문국진씨의 부인 윤연옥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이끌어 ‘고문’에 맞서 의연하게 싸우고 있다.

그 휴유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위한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93년 10월 13일 발족되었다. 먼저 그는 문국진씨가 국가를 상대로 ‘고문휴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을 걸어 3월 현재 두번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 제12조에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동안 고문을 당한 이들은 너무도 많고, 심한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10명이 조사되었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뒤 무혐의로 풀려나 정신이상을 일으킨 김종경씨, 학생운동을 하다 86년 3개월동안 구치소 생활을 한 뒤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김복영씨 등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이들 10인은 우선 첫번째 활동을 인권회복운동으로 잡고 올 4월 경 청와대에 ‘집단청원서’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현재 문국진씨 예는 고문휴유증으로 재판을 건 최초의 사례이다. 국내법으로는 3년이란 소송시효가 지났기에 기각되지만 ‘고문은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에 시효가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역대 군사정권들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워 ‘인권’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고문을 합리화시켜 왔다.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씨가 있


현재 문국진씨
에는
고문휴유증으로
재판을 건
최초의
사례이다.
국내법으로는
3년이란
소송시효가
지났기에
기각되지만
'고문은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에
시효가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있고 '고문기술자'로 수배된 이근안씨가 몇 년
째 잡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내무부 장관
최형우씨가 '사상범에게 잠을 안재울 수도 있
다'고 발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살아 있다.

윤연옥씨는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잘라 말
한다. 여기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곳
은 상대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폭력과 협
박, 비인간적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하는 공권력이다. 이런 권위적인 불가항력
의 권력 앞에서 무참히 꺾여버린 생명이 얼마
나 많을까.

"고문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옛날 고대사회
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에 고문을 못하도록 뚜
렷이 방지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고문이 한 인간을 얼마만큼 파괴시킬 수 있는
가를 정말 알게 되면 감히 인간으로선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개개인에게 각인이 되어 될 것
같아요. 자기 정권에 정당성이 없는 정권일수
록 고문을 제도적인 폭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는 정말 고문이 없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 군사정권에서 고문당했던, 그리고
고문휴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뚜
렷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윤연옥씨의 말처럼 고문이 법으로 금지된다
해도 각 개인에 인식되지 않는 한 영원히 고문
은 살아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연세대
79학번 모임에서 매달 보내주는 상근비로 생활
하며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이끌어 가
고 있는 윤연옥씨. 오랜 세월 의연하게 버티며
개인의 고통을 사회의 고통으로 승화시켜 해결
해가려는 그의 가냘픈 몸에도 이제 살이 붙는
날이 하루 빨리 와야 할 것이다. 여지껏 퇴원
을 하지 못한 문국진씨가 '고문으로 망가진 육
신'임이 입증되어 그의 권리가 되살아오길 이
봄에 간절히 고대해 본다.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5

암게걸음 장간 쫓년 죽기 광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인권의 보호와 인권신장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는 민변에 문의하십시오.

대표간사 홍성우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정립회관 한국소아마비협회

관 장 이원수
이 사 장 송영욱

전화 446-1237

고문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작은 움직임

아직도 고문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신보연 / 본지기자

지난 8월 23일 김근태씨 고문경관들이 법정구속되었고 그 이전인 8월 7일에는 김근태씨에 대해 국가가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간 소위 '3대 고문사태'로 일컬어지던 사건 중 권인숙씨, 고 박종철군 고문사건의 종결에 이어 김근태씨 사건마저 종결됨으로써 이제 고문피해문제는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문피해문제의 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간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속속 피해자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나이 만33세인 문국진씨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네살박이 딸과 아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정신병

원에 입원해 있다. 문국진씨는 대학 2학년 때인 80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1개월 동안 고문을 받았다. 그는 86년에도 소위 '보입다산 사건'으로 수배받다 지수를 했는데 이때 3일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여섯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는 "당신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려고 누워 있는 부인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 시달리다보니 가족들도 지치게 된다. 문국진씨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의 담담했던 심경은 생활고와 거듭되는 남편의 입원으로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

다." 이미 오래 전에 받았던 고문이 아직도 그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단란해야 할 가정까지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90년 '인노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지 10개월여만에 분신자살한 고 최동씨와 그 가족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구속 후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 등 정신적 고문을 받았던 그는 발작과 실어증, 극도의 무기력증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출소 전후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분신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 이후 부친도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며 그동안 운영해오던 동대문시장의 가게도 정리하고 바깥출입을 앓고 지내다가 최동씨의 사십구일제를 지낸 지 몇새만에 화병으로 숨졌다.

군사정권 하에서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던 사람치고 간단한 고문이나마 안

당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운동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끌려들어가게 되면 모욕과 구타는 기본적이고 심한 경우 온갖 악랄한 고문까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한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아직도 날이 갓으면 온몸이 쭈시고, 우울증과 피해, 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속되는 고문피해에 시달리고 있던 문국진씨는 지난 6월 13일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열사추모제'를 보고 나서 "죽느니만 못하게 살고 있는 내 가슴의 용어리를 풀어달라"며 통곡했다. 이 모습을 보며 부인 윤연옥씨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지를 생각하기에도 지친 삶이지만 다시 몸을 추스리고 살아나갈 것"을 결심하고 평소 문국진씨를 걱정하고 도움을 주어왔던 연대동문들과 주변의 친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후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백승현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 처벌과 배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김낙중씨 간첩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갔다가 집단폭행을 당했던 전 회식씨가 합류했고 고 최동씨 가족도 합류할 것인지를 논의중이다.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이 더 많이 합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전과 약간 다르다.

"문국진고문피해대책위는 앞으로 법정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이땅에 더 이상 고문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등 모든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테모나 농성 등이 주된 활동방식이었을 텐데 이제는 법에 호소하고 있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끌려들어가게 되면 모욕과 구타는 기본적이고 심한 경우 온갖 악랄한 고문까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문은 당시에 끝나지 않고 아직도 고문피해자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단란해야 할 가정까지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



다.

3대 고문피해사태에 대해 가해자구속과 국가배상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도 별로 없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하기 힘든 고문피해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 호소문의 글구대로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화합을 이루려는 문민정부라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꺼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

야 할 것"이다.

문국진씨 고문피해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이 용기를 내어 법에 호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례가 일일이 가려지는 과정이야말로 말로만 고문수사금지를 백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부디 고문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이 작은 움직임이 성공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고문 피해자 병원 설립해야

불법연행, 고문을 금하게 되어있는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현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빼앗긴채 살아온 유신 군사 독재정권 아래서 그들에 의해 고문당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 나는 지금 심한 후유증으로 보라매 병원에 입원해있다.

고문 후유증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다 아픔이 더 큰것은 문민정부가 사상최대의 검사 대이동속에서 보여준 아픔때문이다.

비도덕적이며 비인간적으로 법망을 휘두르던 군사독재치하의 검사들이 문민정부 시대에 와서도 영광의 권좌에 앉아있는 그 충격이 오늘 의 고문 후유증을 재발케한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을 치료하고 보상할 수 있는 '고문 후유증 가족 조치법' 이 만들어져야 한다. 억압과 가난 실직과 사회적격리 상태에서 고문당한자나 그 가족 친지들마저 세상과 권력에 감추

어진체 보이지않는 감시속에 유린당한체 체념과 절망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정의 정의로움속에서 기초시민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1993년 9월 20일

고문 후유증 20년 맞아

세계선교회 회장 고 환 규

사위
P. 10. 23. (1562)

'악령의 세월' 배상하라

시사저널
93.10.28

고문당해 정신병 앓는 문국진씨 소송... 진상 규명·고통 분담 절실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 김근태씨 고문 사건을 일으킨 5·6공 '고문 정국' 실상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군사정권 아래서 수많은 지식인과 운동권 학생에게 자행된 밀실 수사와 고문 관행은, 그동안 이를 부인·은폐해온 당국과 정보 기관에 협박당한 피해자들의 함구로 정확한 피해 실상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서 말한 몇건을 제외하고는 고문 피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응징이 가해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오랫동안 고문후유증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고려대부속 구로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문국진씨(34)의 부인 윤연옥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고문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가 그들이 겪어온 고통의 실상을 사회에 '공표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문씨 개인에 대한 피해 배상이라는 의미 말고도, 5·6공 시절 수사 기관으로부터 고문당한 익명의 다수 피해자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무게가 실린다. 이 사건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는 "이번 소송 제기를 계기로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익명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역사적 평가와, 엄중하는 피해를 국민이 분담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한다.

3~6개월씩 일곱번 정신병원 입원

이돈명 백승헌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한 고소장에는 '고문 행위와 발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원고는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 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했고, 노동 능력 상실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했다'면서 '앞으로 같은 이유로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모든 손해를



"고문 받는 인간은, 자기가 짐승으로 느껴진다."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고문피해 소송이 제기된 10월13일에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이 있었다. 고 박종철군 부친인 박정기씨를 대표로 한 이 모임에는 문익환 계훈제 김근태 송경용 최의팔 인재근 최정순 등 재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문씨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 사건이 문씨 개인의 것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문익환 목사는 "우리가 강조하는 민족 민주 자주 통일의 가장 기본은 인권 수호에 있다. 나는 통일 운동을 제쳐놓고라도 고문 피해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말했다. 85년 9월 민청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그 역시

혹독한 고문을 당한 김근태씨는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뻗어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항거 불능 상태로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안 한마리 짐승이 되었다가 작은 미생물로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누가 고문의 실상을 물으면, 의식 저편에서부터 혐오감과 저항감이 솟구쳐 올라 많이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 악몽을 떨쳐내지 않고는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잇고자 발버둥쳐 왔을 뿐이다"라고 털어놓았다.

문국진씨는 86년 노동운동과 관련된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중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때 3일 동안 고문당하며 조사를 받다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30쪽 상자기사 참조).

그후 문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되어 88년 9월 윤연옥과 결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가을 임신 7

개월인 아내 앞에서 병세가 재발했으며, 그뒤 거의 해마다 한번씩 재발해 지금까지 일곱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이다. 따라서 문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아내 윤씨에 따르면, 병이 재발할 때마다 문씨는 "누가 나를 미행한다, 집안에 도청 장치가 돼 있다, 안기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심한 공포와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90년에는 "안기부에서 나와서 너를 강간하지 않았느냐. 나의 행동을 일일이 안기부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냐"라며 윤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주인집에서는 방을 내달라고 하고, 어떤 임하는 자기 아이가 문씨의 네살때기 딸 해인아와 놀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일 립

73. 11/8

고문 후유증 문국진씨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

11. 18(오늘) 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796-8364, 5)

※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함께 할 회원도 모집합니다.

동네방네

1993. 7. 20

아까운 젊음을 구치소와 정신
병원에 '저당잡힌' 남편을 지켜
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
최근 은몸이 뽕뽕 뉘인 채 또
한차례 정신병원으로 실려가는
남편의 뒷모습
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
던 윤연옥(31)

공분실로 끌려갔다.

문씨는 이곳에서 꼬박 사흘
동안 두들겨 맞고 일주일 남짓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구치소
로 넘겨져 3개월 뒤 풀려났다.
그 뒤 조금씩 이상증세를 보
이던 문씨가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한 것은 86년 말부터
였다. 이른바 '보임·다산사건'으

처럼 '고문의 시점'으로 다시 돌
아갔으며, 최근에는 "안기부 프
락치"라며 부인 윤씨의 목을 조
를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다.

그동안 부인 윤씨는 '삶이 너
무도 고통스러워' 어린 딸을 껴
안고 소리없이 운 적도 한두번
이 아니었다. 또 문씨의 '발작'이
심할 때는 너무 무서워 달아나
기도 했으며, 집
주인의 독촉으
로 이삿짐을 싸
는 일도 잦았다.

눈물마저 빼앗아버린 '고문망령'

씨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마저
말라 있었다.

윤씨의 남편 문국진(33)씨가
정신병원을 드나든 것은 이번이
벌써 여섯번째. 문씨가 이런 '고
통의 사슬'에 돌아매이게 된 것
은 신군부통치의 막이 오르던
지난 80년으로 거슬러올라 간다.

당시 연세대 철학과에 다니며
학생운동에 몸담고 있던 문씨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이
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혐의로
불들려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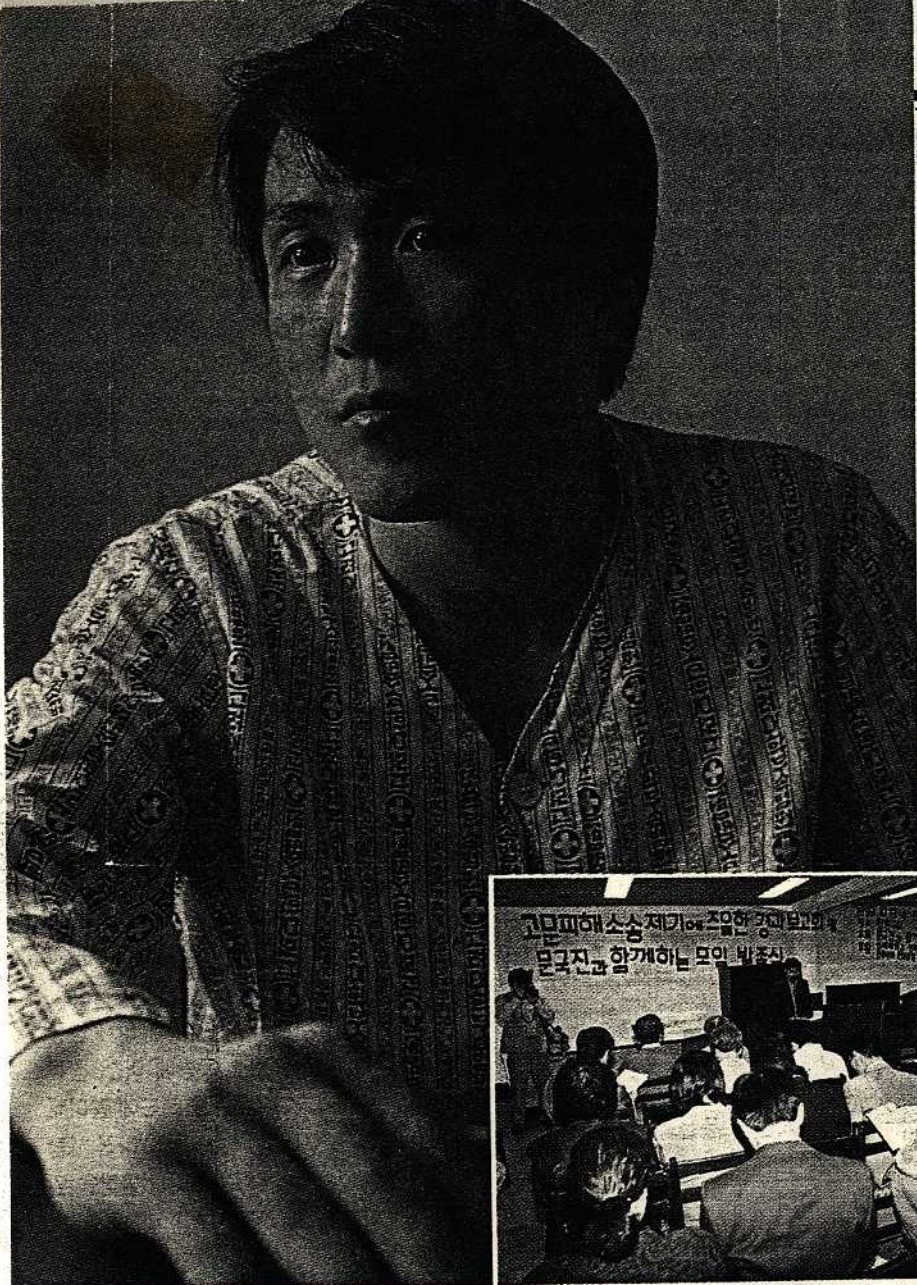
로 수배를 당하면서 80년 때 당
한 고문의 엄청난 정신적·육체
적 공포가 되살아난 것이다. 문
씨는 도피생활 1개월 남짓만에
병세 악화로 자수했으나 증세가
심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치료로 조금씩 회복
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다
가도 곧 병이 재발해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다. 다시 입원할 때
마다 회복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증세도 심해졌다. 이 때마다 그
는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

"인락한 삶을 바라지도 않습
니다. 다만 한 인간이 철저히
파괴돼 가는 모습을 더이상 지
켜볼 수만은 없어요."

이젠 절망하기에도 지쳐버린
윤씨는 "군사정권 시절 무자비
한 투옥과 고문 속에서 인간성
이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의 고통
을 껴안고 치유하지 못한다면
참다운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이따금씩 돌아오는 남편
의 맑은 눈동자를 안타까이 그
릴 뿐이었다. 박중언 기자

문국진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 고문 피해자 문국진씨(위)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모임 발족식(상자 사진).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잠자는 애를 깨안고
플래 운 적도 많았다는 윤씨는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더 이상 주저앉아 지
켜보지 못할 것 같아 소송을 냈다”고 말한
다. 윤씨는 또 “80년대 ‘운동권’ 사람들에게
자행된 무자비한 투옥과 고문의 현장 속에
서 한 인간이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되었을
을 세상에 알리고, 인간성을 파괴한 잔혹한
고문과 고문의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을 일으
킨 사람을 미친 척한다며 방치한 살인적 행
위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문씨가 입원하기 3일 전인 6월23일 아내
윤연옥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고문의 기억이
얼마나 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괴로움

들, 미발달한 우리의 운동, 나약한 육체, 이
사회가, 이 생존이 강제하는 하루하루의 어김
없는 삶의 굴레. 아! 우리의 생명, 과연 우
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살아 있다는 것만
으로도, 물 고문으로 숨 벅찬 순간 또는 전기
가 생체를 관통하여 의식을 잃는 그 무시무
시한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구려. 당신
은 아직도 이 동 터오는 새벽의 시대에 암울
속에 갇혀 있는가요?”

현재 문씨가 입원해 있는 고려대부속 구로
병원 신경정신과 정인과 박사는 진단서에 문
씨의 병이 ‘정신분열증’이라 적고, 발병 원인
에 대해서는 “86년 12월 첫 입원 당시 수사과
정 중 증상이 발생해 국립 정신병원에서 입
원 치료를 시작한 것과 현재까지의 치료 경

과로 보아 심리적 고통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문씨
를 치료해온 동교 신경정신과의원 배기영 박
사는 소견서에서 문씨의 병이 국제질병 분류
기호 298.4에 해당하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
신병’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질병 분류에
따르면, 분류기호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
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
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
기 쉽다’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성 편
집증적 정신병은 298.3에 망라된 급성 반응
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성 또
는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정의된다’고
했다. 배박사는 또 80년 11월 덴마크의학회
에서 실시한 고문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백35명 중 75%
인 1백1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
고된 점과, 또한 고문후유증으로 불안·우울,
의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
분열 증상이 있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문씨의 증세는 고
문후유증,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
신병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대
표 서준식)에서는 국제 인권
단체에 문국진씨 사건과 관련
된 자료들을 발송하고, 이 단
체들과 연대하여 군사정권
에서의 고문후유증에 대해 현정
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 동씨,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

90년 8월7일 한양대에서 분신자살한 최 동
씨의 경우도 고문에 의한 인간 파괴의 참상
그 자체이다. 80년 성균관대 국문학과에 입
학한 뒤 10여년 동안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
을 해온 최씨는 89년 1월 ‘인천·부천 노동
자회’ 사건으로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20여일 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는 칫솔대를 날카롭게 갈아 자해를 시도하
여 기도가 1cm 이상 찢기는 상처를 입었으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다.
이때부터 그의 수면 기능이 파괴되고, 심한
우울증과 피해 망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 구치소로 넘어간 후에도 여러 달 동안 방
치돼다가 종로신경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
은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 증세로 구치소
밖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러나 최씨는 끝내 ‘구치소에서 가해진 음모로
페인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
을 포기하고 말았다.

85년 9월 민청련 사건으로 김근태씨와 함
께 연행, 구속된 이을호씨(당시 서울대 철학
과)도 고문의 악령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경
우다. 이씨는 9월2~25일 남영동 대공분실
에서 물고문과 잠 안재우기 등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던 중 정신 질환 증세를 보



아내는 또 병원에 : 문국진씨 아내 윤연옥씨와 딸 해인.

였다. 가족이 석방을 호소했으나 9월25일 서
대문 구치소에 이감되었다. 그곳에서 인왕선
검사가 취조하는 도중 10월2일 심한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켜 15일 서대문 시립병원에 이송
되었다. 이 기간에 가족이 이씨에 대한 병원의
비인간적 조치에 항의하여 11월23일 국립정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이송된 뒤 감정유
치 명령에 의하여 정신분열 증세로 판명되었
지만 석방이 보류되었다. 통상 2개월로 정해진
감정유치 명령을 9개월을 끌며 다섯차례 연장
한 끝에 86년 6월5일 석방되었다.

당시 함께 구속된 김근태씨는 자기가 받았
던 고문을 이렇게 진술한다. “처음에는 물 고
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칠성관에 풍뎡 목인 채
사워 꼭지와 주전자에서 물이 쏟아 하고 쏟
아져 내려왔다. 물에 빠져 죽을 때의 고통과
공포 속에 처넣어진 것이다. 전기 고문을 할
때는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그러다가 점점
깊고 강하게, 중간에는 다시 약해지다가 갑
자기 강한 전류를 보낸다. 뜨거운 불인두로

온몸을 지저 바짝 말라 바스라지게 하는 것
이다. 땀줄을 뒤뉘리게 하고 신경을 팽팽하
게 잡아당겨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한 고통
이었다.”

“국화꽃 피면 미친 악령이 되살아난다”

김씨와 같은 강도로 고문을 받았을 이씨는
석방후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완쾌되
지 않았다. 86년 12월, 90년 10월, 91년 10
월, 92년 9월, 이렇게 해마다 가을이면 어김
없이 행방불명되거나 안방에 놓인 국화 화분
에 불을 지르는 등 고문의 악령이 되살아나
는 것이다. 올해도 국화가 도심의 가을 정취
를 풍요하게 수놓기 시작하자, 아내
최정순씨는 최근 심경을 이렇게 털
어놓는다.

“또 10월이다. 어머니와 나는 요
즘 하루하루를 살얼음 디디듯 살아
간다. 작년 이맘 때도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우리집은 지금 초
긴장 상태이다. 발병 시기에는 잠
을 안자고 이상한 행동을 해 가슴
이 찢어질 것 같다. 어머니와 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약과 정성을
다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전부터 3년을 내리
입원하는 소동을 치렀기 때문에 올
해라도 건강하게 넘긴다면 12월31
일에 나는 만세를 부르려 한다.”

과거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악용되
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저질러진 고문수
사 관행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문민 정부
의 몫이 되었다. 김근태씨 고문 사건과 관련
하여 6공 재판부에서조차 전 치안본부 대공
수사단 소속 경관에게 고문 사실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 소송의
결과가 그리 비판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부
정되는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는 아무런 의미
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수사 업무에 집착한
나머지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
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민 정부가 군사정권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한 인간
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고문 피해의 실상을
날날이 조사하고, 이같은 야만 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

李成男 차장대우

문국진씨는 이렇게 정신질환자 됐다

·86년 10월12일 : 3월 치안본부에서 수
사한 이른바 ‘보이다산’ 사건. 자로 지
목받아 수배 생활을 하던 중. 광역경찰
서에 지수.

·유치장에 구속된 후 3일 동안 취조실에
서 잠을 안 재우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3일후 부모와 첫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가 시간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같이
고문하려고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킴.

·정신과 검진을 받게 해 달라는 부모의
애원이 묵살된 채 수사가 계속됨. 문씨는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오줌을 먹고, 모택
동·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 전경들을
감시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구
둑발로 강타함. 청량리경찰서 대공과와
유치장에서 40일간 생활.

·86년 11월22일 : 구속만기가 되자 검찰
로 송치해 성동구치소 독방에 이감. 창살
을 부수고 자기가 눈 똥을 복도에 쏟아버
리는 등 계속 난동을 일으키자, 여러 사람
이 있는 방으로 옮겼으나 계속 발작을 일
으킴. 이어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10
일간)으로 옮겨졌으나, 간수 1명이 군화
발로 계속 찼다 함. 그후 징역방에 끌려가
손발과 온몸이 꼼꼼 묶이고 얼굴에 검은
수건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4일 동안 쪼
그리고 갇혀 있다가 다시 독방으로 보내
짐. 부모가 면회갔을 때 문씨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를 지름.

·86년 12월12일 : 검찰 송치 20일후 부
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
다’는 각서 받고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케 함. 87년 2월28일까지 치료받은
후, 퇴원할 때 기소유예 처분 받음.

·88년 9월 : 윤연옥과 결혼. 이후에도 고
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
으며, 현재 고려대부속 구로병원 정신병
동에 입원중.

발굴 · 삼청교육대 심사위원 양심고백

“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결정”

평소 반정부 발언했다고 고교 교사 연행

본지는 1980년 전남 목포지역에서 사회학 일소라는 미명 아래 신군부와 그 부역자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추적했다. 당시 삼청교육 심사를 맡았던 사람의 충격적인 양심선언과 위원, 간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 초법적인 심사과정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편집자 주)

5·18민중항쟁 16주년 기념행사가 광주 목포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1996년 5월19일 오후 조효석(75·목포시 거주)씨는 그의 집에서 본지 기자에게 16년동안 가슴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씨는 “이런 증언 때문에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되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 7월 국가보안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공직사회 정화와 불량배 소탕을 위해 삼청5호사업을 발표했다. 당시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었던 김만기씨가 겸임했으며, 간사위원은 허삼수씨였다.

계엄포고령 13호에 따라 목포지역에도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일어났으며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조씨의 증언에 따르면 목포에서는 예비군연대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보안사 목포 파견대장 안명주 소령(해군), 목포지청 김승규 검사(현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목포시 수사과장, 경찰서 공의(公醫) 이 모(현재 서울거주)씨, 조효석(당시 목포시청 상임지문위원)씨를 포함하여 7명이 초기 심사위원이었다.

심사위원회 간사는 당시 목포서형사계장이었던 김기동(사업·목포시 거주)씨였다. 김씨는 이후 정보2계장을 지내며 오랫동안 목포경찰서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다 재작년에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자진 퇴직했으나 진정서가 끊이지 않는 바람에 결국 구속되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한 주에 1~2회씩 열렸다. 조씨의 증언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자료도 주어지지 않았다. 단지 심사등급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심사표 몇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조씨는 “먼저 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다음 심사대상은 이러저러한 죄를 짓고 들어왔다고 보고한 후 심사대상자를 입장시켰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나면 심사대상자는 퇴장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등급을 기재한 심사표를 취합해 최종등급을 판정했다. 한사람을 처리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조씨는 “당시 간사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간사가 피의자의 혐의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한사람의 운명이 결정됐다.

“간사가 혐의내용을 부풀리거나 축소해도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 동안 몇마디 질문하는 것 외에는 이

를 제대로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었다”고 조씨는 증언했다.

김승규 지청장은 “문신이 있다고 잡아가는 등 비법적인 행동이었으나, 가능하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애를 썼다”고 말했다.

형사계장 말 한마디에 운명 결정

조씨의 증언에 따르면 8월 한달 동안 심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소한 시비 끝에 잡혀 오거나, 반체제인물이 많았다. 당시 목포지역에서 이름을 알 만한 깡패들이나 평판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부정축재자들은 웬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초·고등학교 생물교사가 심사대에 올랐다. 간사는 “여학생이 부역에서 목욕하는 것을 엿본 파렴치범”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가정방문을 갔을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무언가 의심이 든 조씨가 평소 행실을 묻자 간사는 “그 사람은 평소부터 반정부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속셈을 털어놓았다. 이 교사는 결국 훈방으로 처리됐다.

이상숙(61·현 5·18민중항쟁동지회 지도위원)씨는 80년 12월23일 다방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전두환씨를 가리키며 “살인강도”라고 말했다. 불과 10분만에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연행된 이씨는 5일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다 바로 원주로 끌려갔다.

이씨는 “유치장 간수들로부터 당신은 조사계장에게 잘 보여야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다”고 주장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매질 속에 4주를 보낸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보름동안 의무대 신세를



삼청교육대는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악용됐다.

지다 귀가했다.

이씨는 “형식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삼청교육에 끌려간 경우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목포서 조사계장은 주영태(현 광주남부서 형사과장)씨였다. 주씨는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조사담당 직원들이 작성한 서류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현황보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숙씨는 “그때 간사를 맡았던 형사계장과 조사계장이 때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재력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운수업을 하는 황 모씨, 식당업을 하는 이 모씨와 병원의사 등 지역에서 부정축재로 지탄을 받던 몇 사람이 간사들의 도움으로 유치장에서 빠져나갔다”면서 그 내막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효석씨도 “부인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잡혀 온 윤 모씨의 딸이 사무실로 찾아와 울면서 구명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말해 당시 심사위원이나 간사들을 상대로 구명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간사들이 때돈 벌었다” 주장

이렇게 6달동안 목포지역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인원이 적어도 600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훈방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5공정문화 과정에서 장부발표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은 목포지역에서 모두 57명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신고한 숫자가 정부가 발표한 삼청교육수요자의 10%가 채 안되는 3,215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숫자다.

신군부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만행이 벌어지지도 16년이 지났다. 폭도의 도시로 매도당하며 기피의 땅으로 낙인찍혔던 광주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학살의 주역들이 법정에서 서는 한편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힘찬 몸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3만9천여명을 강제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켰던 삼청교육대의 진상은 아직까지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목포=김형수·김세환·신명식 기자>

■ 숨겨진 역사-삼청교육대

계엄해제 이후 감호소 감금

450여명 구타와 후유증으로 사망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모두 6만7백55명이 사회학을 일소한다는 명분 아래 영장도 없이 연행됐다. 이들중 A급으로 분류된 3,2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D급으로 분류된 1만7천7백17명은 훈방조치 됐다. 나머지 3만9천7백86명은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끊임없는 매질 속에 28일을 강제 감금당한 이들중 2만여명은 다시 근로봉사대에 끌려가 6개월동안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1981년 1월24일 계엄해제 당시 전국에서 1만2백80명이 군부대에 수용중이었다. 이들

중 계엄해제와 함께 석방된 사람은 2,710명 뿐이었다.

나머지 7,578명은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그해 12월 완공된 청송감호소로 끌려갔다.

참혹한 인권유린 과정에서 50명이 사망했

으며 그후 후유증으로 397명이 더 사망했다.

폭력배나 파렴치범 인권과괴범 등을 대상으로 삼청교육을 실시했다는 사회적 편견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픈 과거를 드러내기 꺼려한다. 그나마 일부 피해자들의

피맺힌 주장을 통해 그 실상이 공개되자 88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특별담화를 통해 피해자신고를 받는 한편 피해배상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가 만들어지고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가운데 8년이 지나지만 정부의 약속이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91년이후 1,2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고소송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1년째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의 반발만 커지고 있다.

목포=김형수·김세환·신명식 기자



배인오씨 2년간의 프락치생활 양심선언
**“암호명 진달래, 고유번호 ‘7353’
 나는 안기부 프락치였다”**

프락치 강요한 안기부 김성훈 과장 비디오로 촬영



▲ 독일 녹색당과 국제사면위원회 도움으로 양심선언을 하는 배인오씨 (94. 10. 31, 베를린)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유가족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5-2 센추리2빌딩 704호 /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안기부에 포섭된 이후 저의 삶은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모두 안기부를 위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저는 미친 사냥개가 되어 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 제가 국내에서 양심선언을 하지 못한 점 한총련 백만청년학생들에게, 또한 재야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안기부는 제 그림자처럼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안기부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 배인오씨 「양심선언문」 중에서

배인오가 밝힌 프락치 활동 일지 (본명 백홍룡, 28세)

• 92년 6월 배인오씨, 자신이 주연과 제작을 맡은 '이름 없는 영웅들' 미국 상영 후 안기부 직원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자취방에 몇 차례 찾아와 호텔 등지에서 조사를 받음

• 92년 6월말 부산 해운대 근처 안기부 안가에서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 결핵 발기인 큰 형을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에 굴복, 프락치가 됨.

• 92년 7월 안기부 김성훈 과장이 일본 조청연 청년단체인 '조청'과 전대협외의 연계를 조사하라고 지시. 15일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조청 조직부장 조선오씨 등을 만남.

"국내와 연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 92년 10월 김과장, 조청과 전대협 연계를 다시 조사할 것과 천주교 노동사목화 사부장 정인순씨가 일본에서 만난 사람도 알아보라고 지시. 조청 조직원들을 다시 만나 조사한

후 전대협과는 연계가 없음을 보고.

• 93년 1월 김과장, "국내 사민청(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과 일본 조청을 연결하라"는 지시를 내려 배인오씨 조청 정치부차장 김성철을 만나 국내외의 연계사업을 제안. "현재로서는 조청은 남한단체와 연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듣고 보고.

• 93년 2월경 배인오씨 안기부로부터 암호명('진달래')과 고유번호('7353')를 지정받음.

• 93년 5월초 "조청연계 영화단체를 통해 북한영화를 입수하여 한총련에 보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청연계 영화사 '시네까롱' 관계자를 만나 북한영화를 입수하고, 4편은 인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귀국. 김과장의 "김은주씨를 통해 영화를 건네받게 만들어라. 김삼석에게도 소지하게끔 하라"

는 지시 내려 수행.

• 93년 7월 「김정일영화예술론」을 한총련에 보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총련 문화부 사람을 만나 전달함.

• 93년 7월말 김성훈 과장이 "지금 나와 내가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다. 하루 속히 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김은주와 김삼석이 가능하다. 일본에 가서 이북관련 책을 보내달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김은주로 연결시켜라"고 지시하여 배인오씨 일본에 가 김은주씨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음.



• 93년 8월초 범민족대회때 북한영화회 한총련 주최로 상영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한총련을 접촉. 합법적으로 상영을 하려는 한총련의 신고서를 통일원에서 거부하여 공작이 실패하여 배인오씨는 자신이 속한 남누리영상 주최로 상영함.

• 93년 8월 중순 과장의 지시대로 배인오씨는 김은주씨에게 한총련에 「김일성 10대강령」을 전달시킴. 김은주씨는 내용도 몇차례 거절하였으나 마시 못해 내용도 모르면서 심부름을 해줌.

• 93년 9월 8일 김성훈 과장이 아침에 배인오를 불러내어 일본에서 김은주에게 책을 전달하려는 사람이 온다며 김은주가 연락을 해도 모른 채 하라고 지시.

▶김은주씨는 배인오씨가 부탁한 일본어 통역을 하기로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으나 한국 말을 너무 잘해 자신이 갈 필요가 없을 것같아 연락을 취했으나 안되어 혼자 나감. 일본에서 왔다는 50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봉투만 주어 배인오씨에게 전달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서서 100여m 걸어오다 10여명의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됨. 같은 시각 김삼석씨도 집에서 연행됨.

▶김은주씨는 안기부에서 배인오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였으나, 전달해준 50대 남자나 사건 이후 며칠동안 사무실에 있던 배인오씨는 붙잡지 않음.

• 93년 9월 9일 배인오씨를 불러낸 김성훈 과장은 "김은주

가 자꾸만 니가 시켰다고 말하니까 피신해 있으라"고 하여 직원들과 경북 상주에 있는 안기부 안가 등으로 2개월 동안 피신함.

• 93년 10월 28일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 기자회견

• 93년 10월 30일 김삼석 남매 사건 이후 안기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배인오씨는 선배 약혼식 비디오를 찍는 날 약속을 하여 안기부 김성훈 과장과 운동한 수사관의 얼굴을 촬영함.

• 93년 11월 94년 2월 과장의 지시로 안기부 직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탄양어장에 피신해 있으면서 교육을 받음.

• 94년 3월~5월 과장의 지시로 배인오씨는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자신은 프락치로 몰려 억울하다며 해명.

• 94년 6월~8월 운동권 중에서 새로운 프락치를 모색하여 2명을 후보자로 추천. 안기부에 포섭되었는지 여부는 모름.

• 94년 8월말 김과장, 여행도 할겸 베를린에 있는 범청학련 사무국에 가서 분위기도 파악하고, 국내에서 범청학련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출국 준비 지시.

• 94년 9월 1일 김과장은 배인오씨가 일본을 오가며 썼던 여권을 빼앗고 새 여권과 비행기표, 여행경비(160여만원)를 줌. 배인오씨는 베를린에 가면 양심선언을 할려고 안기부 직원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숨겨서 베를린으로 출국.



↑배인오씨가 비디오 촬영한 안기부 김성훈 과장과 운동한 수사관

• 94년 10월 20일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양심선언을 하려다 안기부 직원들이 미행할까 봐 50여일동안 여행하면서 고민하다 범청학련을 찾아가 양심선언 의사를 밝힘.

• 94년 10월 31일 독일 녹색당과 국제사면위원회의 도움으로 양심선언을 하고, 독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함.

<어달의 주재-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응징해줘도 안 된다. 그와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사화건 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도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9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인권하루소식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혐의로 기소돼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심각한 훼손

제대하지 4개월이 지난 민간인을 총기절도혐의로 헌병대에서 언행한 뒤 참고인을 위협하여 진술조서를 받는데 동의 의혹이 인권단체와 가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총기관리 소홀을 정신장애 4급인 사람에게 떠넘겨 큰대한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위원장 김종일, 군·경대책위)에 따르면 93년 12월 의가사제대한 김벽창(22)씨가 지난 4월 12일 밤 수도권헌병대에 언행당해 '전기의자에 앉혀라' 등의 공포본위기에서 총을 총쳤다는 허위자백 끝에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다. 김씨는 4월 22일 가족과의 면회이후 재수 자신의 진술을 반복, 총을 총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과 가족, 군·경대책위 김종일위원장 등을 통해 알려졌다.

또 김씨의 언행에 앞서 4월 3일과 5일에 김씨의 증한고 동기이고 군생활을 같이 한 손아무개씨가 수도권헌병대에 언행되어 '벽창이가 총 총쳤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같이 구속시키겠다'는 위협에 '김벽창이 총을 총쳤다고 얘기하는 것 들었다'(4월 3일), '김벽창이 총을 가지고 와서 다같이 만져보았다'(4월 5일)고 진술

한 사실이 손씨의 입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수도권헌병대의

조아루가 수사과장은 지난 5월 27일 군·경대책위 김위원장과 가족과의 면회때 수사초기 김씨에게 구타, 협박, 폭행사실을 시인했다고 군·경대책위 관계자는 8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또 수사초기에 김씨가 "굴에 쪼여 있는 굴오리를 맞추기 위해 총을 갈대에 버렸다"는 진술(2면에 계속)

8일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강연회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있다"

'평화를 위해 싸워온 오월광장 어머니회, 20년'이라는 주제의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대중강연회가 8일 저녁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박용길 장로님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소설가 윤정모씨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후아나(78, 재정담당)씨는 "지구상에 단 한명이라도 고문당하고, 실종되고, 거리에서 학살되며, 어린이가 성폭행당하거나 혹은 마약과 마피야가 여전한 세상이라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후아나씨는 지난 3월 말 파리에서 열린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모임'에 참가한 각 나라의 경우를 소개하며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 국제연대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아우로라(63, 지부대표)씨는 "학살의 책임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며, 인권을 유린한 학살자의 처벌을 강조하였다. 또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초대회장이 체포되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며 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탄압상을 소개하면서도 "우리의 투쟁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평생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태열사의 어머니들은 강연회후 오월광장 어머니회와 안고 권력형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울 것을 다짐하며 오월, 이에 통역사가 눈시울을 적시는 중에 잠시 울음소리가 강연장에 퍼지기도 했다.

'오월광장 초청추진위'(공동대표 박형규등, 초청추진위) 주최로 열린 강연회는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과 활동과정을 담은 비디오 상영, 박용수(한글문화연구원 이사장)씨가 우리나라의 민주화투쟁을 담은 사진첩을 이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한국-아르헨티나 고난받는 어머니들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양심수석법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8차 민가협 목요일집회

- 사회 : 임수경·임종석
- 노래/시낭송/일안곡 : 노찾사, 김광석, 신지아, 안치환, 유열/도종환/원창연
- 증언 : 이종환 선생님
- 공동선언 : 5월광장·민가협 어머니
- 일시 : 6월 9일(목) 6시30분-9시
- 장소 : 명동성당
- 주최 : 민가협 / □문의 : 763-2606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우리를 잊는다

이순심씨 10년 구형

부모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큰 "체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16일 폭력남편을 살해하고 구속기소된 이순심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중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해은검사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참조할 줄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긴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철준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20여년동안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밝혀졌다.

둘째,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다룰 수 없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없었음뿐 아니라 이웃이나 친척에게조차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셋째, 오랫동안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오면서 기약력 저하, 신경과민, 공포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볼때 일시적 책임능력을喪가 될 수도 있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살해행위가 긴급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범어나 체도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긴급성을 판단하는데 자료로 삼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변호사는 아

내구타가 단순히 부부싸움이며 가정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며 그 의식이 법제에도 스며있다고 보고 "이번 판결은 이순심씨와 사회가 나뉘어져야 한다"고 제기한뒤, 제2, 제3의 이순심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순심씨는 최후전술에서 "남편이 너무나 무서워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잊지못한 채 호소했다.

재판을 지켜본 김경희(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정인단 실행위원장)씨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시각에서 구형을 한 것은 말도 안된다. 이순심씨의 지난 20여년간의 가정생활에 대한 참작이 전혀 없었다"며 구형량에 불만을 나타냈다. 남중지(한국여성의전화 간사)씨도 "경사의 구형이 담고 적응을 떠나 지난 5차공판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년 넘게 아내를 구타해온 남편은 체척두고 피고에게만 가정공동체를 파괴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반문했다. 선고공판은 28일이며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정인단"은 28일 전에 재판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전기의자에 앉혀놓고 혈박과 하의를 벗기고 최요행으로 상기를 치는 등 심고문을 당했다"며, "총기를 총질했다는 자백은 공포분위에서 할기 위해 어쩔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판에서는 독수리 훈련기간동안 총기소지 부적격자여게 총기로 지습한 사실, 총기수검대장의 폭언사실 등이 확인되어 현술한 부대총기관리문제가 드러났다.

아들잃은 5월광장어머니애 위로와 감사의 뜻 전달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44년째 복역중인 세계최장거수 김선명씨를 면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의 후아나씨와 아우로라씨 그리고 서경순(민가협 상임의장)씨 등은 14일 오후3시경 대전교도소를 방문했다. 대전교도소측으로부터 면회절절을 당한뒤 결국 박계동국회의원만이 오후6시가 지나 김선명씨를 면회할 수 있었다.

김선명씨를 면회한 박의원은 "신문을 통해 후아나씨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아들을 잃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아르헨티나에서 먼 이곳까지 찾아준데 감사드린다. 직접 만나고 싶었다. 감옥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김씨의 말을 전했다. 면회를 하는동안 교도소밖에서는 민가협등 1백여명이 오후9시가 넘도록 집회를 벌였다.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발표

-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
- 안경환 교수(서울대법대)
-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 국회에서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 이석범 변호사(민변)
-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 정태운(경실련 정책실장)

· 일시 : 6월 16일(목) 오후2시
· 장소 :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22-7284)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벽창씨 공판

지난 13일 오후 수도권단 군사법원에서 총기절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벽창씨의 첫공판이 있었다. 공판에서 김씨는 "헌병대 수사관에 의해 강제인행되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학단협 「공안문제연구소」에 공개토론회 제안

“검찰의 강좌 폐지 강요는 교권 및 학습권 짓밟는 것”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회의 이해」로 문제가 된 경상대학교 사건의 대해 “학문적 지식은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지 공안적 잣대로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검찰당국이 이 책을 교재로 쓰는 대학의 강좌를 폐지까지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과 교권, 나아가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단협은 「공안문제연구소」가 학문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학문적 업적을 매도하였다면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학단협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산업사회연」 불법수색 “전두환정권때도 없었던 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한국산업사회연구회」(회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 사무실이 4일 오후 8시에서 5일 새벽 사이에 불법으로 수색당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4일 낮에 ‘관악서 정보과 형사’라는 남자가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아 이번 불

법수색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연구회는 6일(토) 오전 10시에 서울지검에 불법수색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청동사건은 조작” 고대 학부위 물품 압수품으로 둔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5일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경의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수사발표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경찰이 총학생회를 배후조정하기 위해 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16청년회’는 94년 2월 16일 결성되었던 반면에 총학생회는 93년 11월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격차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점과 ‘2.16청년회’ 일원인 강진구(사학 87학번)씨는 결성시 당시 방위로 경남 함양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한편 고려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는 4일 서울시경이 발표한 이번 사건의 압수목록의 물품(실내 안테나, 테이프 복사기, 팩스, 컴퓨터)이 7월 28일 학내 침탈시 도둑맞은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복사기와 컴퓨터, 팩스는 생활정보 신문인 「안암글」 편집용이며, 테이프복사기는 AFKN 특강 테이프 복사, 안테나는 대형TV수신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현재 고대 총학생회는 “공안탐압분쇄 및 학생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매진중이다.

변호인점전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점전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 변호사가 점전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영등포교도소, 안재구씨 면회 제한

구국천위 사건으로 기소된 안재구(영등포교도소 수감)씨의 면회가 제한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시되고 있다. 안재구씨의 딸 소영, 소정씨에 의하면 지난 28일 기소된

이후 면회를 할 수 있었는데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민가협 대표 서경순 등이 안익을 면회코사 했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제완변호사는 “면회가 직계가족에 한정한다는 법적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족행위 및 징벌권 남용 손배소송 제기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석진(24, 전투경찰 양심선언자)씨는 5일 신채 가혹행위와 징벌권 남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대한민국, 송선홍(영등포교도소장), 강봉학(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을 피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폭행당하고 족수정등에 채워진 채 15일간 독방에 갇히고, 강제금식까지 당했다고.

민가협측은 지난 20, 2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사망을 계기로 행형제도와 재소자 인권개선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월 3일자 사설

「붉은 教授」사실인가(부분 발췌)

이적성 교재를 공동 저술한 대학교수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준다. 학문연구의 주체이며 이 사회를 이끄는 지식의 대표라 할 대학교수가 위생적 교재로 학생들을 오도한다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학문 풍토다. (중략) 문제된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는 교수 9명이 전공분야별로 작성한 11편의 논문을 수록하면서 해방이후의 현대사를 마르크스史觀에 입각해 분석 비판하고 있다. (중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 소장교수들이 객관적 연구와 사실적 검증도 거처치 않은 채 지난날 자신들 학생시절의 낡은 논리를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략) 北韓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는 충격적 진술과 함께 이 땅에 「붉은 교수」가 있다는 의혹은 차체에 신중하고도 엄정하게 가려져야 한다.

◆ 알 림 ◆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불법수색에 대한 고소장 접수
 - 일시 : 8월 6일(토) 오전 10시
 - 고발접수처 : 서울지검 검찰청
 - 접수자 : 박승희 교수(성균관대) 등

- 원진레이온노동자 투쟁자금마련 일일호프
 - 일시 : 8월 6일(토) 10:00-22:00
 - 장소 : 동국대 후문 샤토타 호프집(계일병원 옆)
 - 주최 :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전화:0346-63-3645)
 - 원진레이온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서울지역 학생대책위원회

<이들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그의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념,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 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곤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지난 1월 9일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한다. 87번째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로써 고문방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항목에 의해 규제 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지난 1월 29일 재입원하였다. 문국진씨는 지난해 퇴원 이후 정상인에 가깝게 원고 집필등을 하면서 약을 복용해왔으나, 다시 지난 1월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고대 구로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 것이다. 문국진씨가 제기한 재판은 서울민지법에서

그동안 7차례 열려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86년 경찰 연행과 구치소 생활후 고문후유증을 보여 8차례나 병원을 드나들었던 김복영(31)씨는 집에서 계속 우울증을 보이며 식사를 거르다가 지난 3일 돌연 가출하였으나, 7일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김씨의 누나 김효숙(34)씨는 "정신도 온전치 못한 복영이가 추운 날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럽다. 언제나 고문의 아픔을 이기고 친구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며 매우 안타까와 하고 있다.

86년 신길동 시위 사건으로 연행, 구치소를 다녀온 후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환용(31)씨는 지난 겨울에 경북의 어느 절에 가서 요양을 한다며 집을 나갔다. 가끔 그의 동생들이 강씨를 만나고 오지만, 강씨의 상태는 썩

좋지 못하다고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혐의자로 몰려 93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바 있는 김종경(44)씨는 지난해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씨의 부인 오운자씨는 "가세는 기울고 언제 집을 쫓겨날지 모른 형편이다. 장사로 겨우 생활은 하는데, 민사소송이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가장인 김씨가 계속 고문의 기억을 떨치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외에도 81년 인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던 최

영미(34)씨, 86년 민청련 간부를 지낸 윤아무개씨, 현재도 감옥에 있는 방양균씨 등 많은 이들이 과거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형편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하지만, 1년이 안되어 다시 재발하곤 하며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고문방지조약은 제14조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문방지조약은 광의의 고문 개념, 고문에 의한 자백의 불인정,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고문 미수범도 고문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위의 친지들에게 <인권하루소식> 1부씩만 권해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은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 독자배가운등을 전개합니다.

자동이체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동이체는 통장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갖고 해당 은행에 찾아가 한번만 신청해 놓으면 됩니다.

<구독료 구좌안내>

- | | |
|------------------------|-----------------------|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준식 |
| 제일은행 128-10-131017 | 상업은행 431-07-056582 |
| 농협 011-01-404581 | 조흥은행 438-06-016840 |
| 외환은행 057-18-33811-7 | 우체국 013292-0011731 |
| 한일은행 112-182999-12-001 | 하나은행 105-106617-00107 |
| 신한은행 355-02-035530 | 국민은행 015-21-0723-021 |

관공의 해와 평화교육

- 일시: 2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 장소: 삼공회 피점의 집(전화: 735-7832)
- 강사: 차인석교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주최: 서울평화교육센터(전화: 823-2961)

지난 6일 있었던 「인권운동사랑방」 집들이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져 더욱 열심히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달의 주제-물치별>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
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피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
스 리. 집단학살의 공범

<특언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발가벗긴 채 또 고문

성동경찰서, 차별단속 항의 노점상 구속

지난 26일 폭력질거에 항
의하던 노점상이 성동경찰
서에 연행된 후 발가벗기워
진 채 장시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
련)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구속된 「장애인노점상자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양연
수, 장자추) 회원 5명이 '노
점상 차별단속'과 '부당구
속'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
자 이들을 집단폭행하고,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박영생(26, 전노련
영등포지구 사무차장)씨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속적
으로 의경들에게 집단폭행
을 당했고, 강제로 입에 채
갈이 물렸고, 펜티를 제외
하고 모든 옷이 벗겨졌다.
면회한 이들에 의하면 심지
어 면회장에게까지 박씨는 펜
티만 입은 상태로 나왔고,
온몸이 푸른 멍투성이였다
고 전했다. 박씨는 뒷수갑
을 채우고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빨과 팔목 등에

부상을 당해 이에 대한 치
료를 경찰서측에 요구했으
나,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
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씨
는 홍경인(40, 전노련 중구
지구 사무국장)씨와 함께 3
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장자추 소속 노점상 13명
은 지난 26일 오전10시경
청계8가에서 노점을 시작하
려 했으나, 경찰과 구청측
에서 나와 장사를 못하고
대치중이었다고 한다. 오전
11시경 소위 '뺨다반'(토,일
요일만 자리를 빌려 장사하
는 노점상)들이 몰려들어
이들을 폭행하고, 집기와
물건을 부수었다. 장자추
회원들은 경찰에 이를 말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 이에 도로에서 폭
력 중단과 차별단속 중지동
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자,
즉각 경찰은 13명 전원을
연행, 이들중 5명은 특수공
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동경찰서측은 이들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장실문등을 부셨다고 주
장하고 있다.

<구속자 명단>

주요공판안내

- <29일>(화)
김기용, 오전10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민사지법 559호
문국진, 오전10시, 고문후유증 손해소송항소심, 서울고법406호
<30일>(수)
황인성, 오후4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 319호
신광수의인, 오전11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1부, 418호
<9월1일>(금)
문순덕,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311호

홍경인, 박영생, 김종상,
박관영(장애인), 박명규

레이니 주한미대사
반미감정 발언 사과요구

레이니 주한미대사가 24
일 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
에서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의한 것'이라고 한 내용이
알려지자, 「주한미군법죄근
본부」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은 26
일 성명을 내고 이를 비난
했다.

운동본부는 "주한미군 병
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한국언
론에 돌리는 무책임한 아전
인수식 행위"라며 "5월과 6
월에 걸쳐 자행되었던 미군
의 연쇄적인 범죄 이후에도
7월28일 평택에서 미군의

난폭운전으로 고등학생 2명
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
하는 등 미군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지
적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타
이니 주한미대사는 무례한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한국
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80년대초에도 워킹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
민은 쥐새끼들'이라고 표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백산서당 직원 구속

서울시경은 27일 정순구
(27, 인천대 졸, 현 백산서
당 직원)씨를 집에서 연행
조사중이다. 정씨는 앞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판
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잡습니다.>

26일자 'LG 그룹 해고자
2명 법정구속기사'중 1차
심리에 'LG 해고자 5명 전
원이 출석'하였고, '그룹측
의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
였기에 바로잡습니다.

함께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인권전문센타로 함께 연구하고 인권현장에 가
까와질 젊은 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대상>
인권자료실원, 하루소식 기자, 국제연대담당자 약간명
<제출기한과 서류>
9월10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의견서(A4용지 2매)
인권단체나 인권관련사업 종사자 추천서(가능한 경우)
<결과통보>
면접 이후 개별통지
- 문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02-715-9185)

<이달의 주제-물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
 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
 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내 최초 '인권교육' 필수과목으로 성공시대, 인권운동가로 강사진 꾸려

「성공시대학교」(총장 이재정)는 이번 2학기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인권강좌 '인권과 평화'(담당교수: 문진영)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 개설하였다.

성공시대측은 이 과목의 개설 목적을 "미래 저항적인 관점에서 '지구화' 시대, '탈냉전' 시대의 보편적인 덕목으로서 인권과 평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 교육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상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학생 개개인이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오후 두차례씩 열릴 강의는 '왜 인권의 문제를 생각하는가?'(오재식 사회교육원 원장), '인권과 나'(류은숙 인천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인권의 개념과 쟁점'(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운동'(박원순 변호사),

인권현장 방문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 강사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성공시대학교에서는 지난 학기에도 교양과목으로 이 강좌를 개설,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성동경찰서 구속 노점상 박영생씨 진료받아

지난 26일 성동경찰서에서 연행, 구속된 박영생(26, 전국노점상연합회 영등포지구 사무차장)씨가 옷이 벗겨진 채 구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강제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유인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변호사 접견에서 밝혀졌다.

한편,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은 29일 오후 박씨를 성동경찰서로 찾아가 직접 치료했다.

한편, 노점상들은 지난 26일 사건 직후 약 5-60명이 성동경찰서에서 발생농성하면서, '차별적인 노점상 단

속 중단'과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성동서측은 이들에게 차별적인 노점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곧 성동경찰서 측

에 항의방문단을 보내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애노점상 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측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은 영벌이등의 구결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분노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구속자 명단>
 박영생, 홍정희, 박광혁(장애인), 김종상, 박명규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란?>

구결의 삶 거부, 삶 스스로 개척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위원장 양연수, 장자추)는 지난 4월 분신사망한 장애 노점상 최정환씨의 장례 이후 장애인들의 자활 노력의 결실체다. 양연수씨는 "지난 5월 초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전국노점상연합회」등의 3개 단체에서 장애노점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구결적인 삶을 청산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보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자추는 결성식을 마친 후 인천 연수지구 아암동(송도근처)지역부터 터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인천지역에서 약 2달간의 활동으로 장애노점상들의 노점 터를 잡은 이들은 8월초부터 서울지역의 청계8가 지역에서부터 다시 뿌리내리기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인천지역 아암동에 60여명, 서울 20명 등 1백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 지방으로 조직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들 장애인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영벌이, 시장에서 구두닦이 등으로 생계를 이으며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이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데는 기존의 150여개 장애인 단체들이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힘을 쏟지 못한 이유도 컸다.

장자추는 결성 취지문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4백만 장애인중 고작 12만명 정도이고, 3백인 이상 사업장 2% 의무고용 조항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취업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공공시설 가판대 역시 그림의 떡"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노점을 하다 절망적인 삶에 대해 분신으로 절규한 증증영세장애인 '최정환' 열사의 뜻을 이어, 돈없고 힘없는 이땅의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결성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이들 장애 노점상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길을 모두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를 이용하십시오!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 국제 인권 소식 ●

EU, 외국인민의 동등한 권리 행사에 관심 가져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파드라 그 플린 사회분과 집행위원은 지난 2월초 집행위에 영주권을 얻어 유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 제3국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며 EU 12개 회원국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 등은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인을 포함한 유럽내 9백만 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플린의 제안은 1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가능한데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유럽국가들이 의면해온 외국인민자들의 동등한 권리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의의를 갖는다.

유럽, 인종주의 희생자 증가 유럽에서 72명 외국인 희생-93년

93년 한해동안 유럽전역에서 72명이 인종주의에 희생되었다고 최근 영국 의 인권단체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반대운동(CARF)'이 보고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는 독일에서 발생했는데 92년에 25명, 93년에 52명이 피살되었다. 또 영국에서는 92년에 12명, 93년에 6명이 피살됐다.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이민이나 난민에 대한 살해행위는 주로 극우단체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범죄는 유럽의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예산의 축소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럽의 실업자수는 2천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의 한 관계자는 2천년때까지 유럽대륙에는 유색인종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재일한국정치범 석방 전후처리 해결 요구'

재일인권단체 19-21일 단식농성도

22일 일본의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공동대표 : 김대명·김윤철·고정신, 이하 민권협)는 김영삼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제출한 요망사에서 △재일한국인정치범의 석방문제 △전후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등에 관해서 한일 양정부가 한일수뇌회담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표들은 당일 오전 11시 주일한국대사관을 방문하고 박영관 법무협력관, 오후 3시 45분에 일본수상관저를 방문하여 하토야마 내각관방 부장관을 면담하고 위의 요망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손유형씨를 지원하는 모임」과 「관서 한국정치범 구원연락처」는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방문(24일-26일)을 앞두고 19일-21일까지 3일간 손유형씨를 비롯한 재일한국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오사카 세이와 교회에서 벌였다.

이들은 단식에 들어가며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난 3월 2일 한국을 방문한 호스카와 수상은 '한-일 신시대 개막'이라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한국의 감옥에는 손유형씨를 비롯한 7명의 재일한국인이 있다. 진정한 일한 신시대의 출발은 이들의 석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단식 중 매일 아침집회를 가진 뒤 일본내 한국정치범 구명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물을 역전과 주력가에서 배포했다.

단식을 마치고 이들은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을 일본에 광범위하게 호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단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손유형씨를 지원하는 모임' 등은 일본 정당파 도이다까쵸 중의원의장, 일본 의무성과 주일한국대사관 등을 방문, 면담을 통해 한국정치범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오는 29일 한국에 최병모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장)를 초청, 한국의 인권상황을 들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씨 신체감정서

고문피해자 문국진씨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궁 기(연세의료원 정신과)씨는 신체감정서에서 "문국진씨가 86년 이전에는 기왕증(이전의 동일한 병력)이 없었으며, 문씨의 정신분열증 발병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씨에 대한 신체감정은 93년 12월 28일부터 94년 1월 12일까지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가 지정한 연세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인 남궁 기씨에 의해 이뤄졌다.

문씨는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고문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해서 노동능력 등을 상실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는 '보임·다산 사건'으로 86년 10월 27일 청양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47일 동안 구타 등의 고문을 받아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중국동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다가 87년 2월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조정희씨 단식해제

지난 21일부터 경기도 이천군 육군장호원교도소에서 '특수동' 복역자들에게 대한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허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조정희씨가 23일 단식을 해제했다.

조씨는 교도소측이 자신에게 종교활동과 VTR 시청 등을 보장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단식을 해제한 사실이 23일 조씨를 면회한 어머니를 통해 밝혀졌다.

◆ 바로잡습니다 ◆

3월 23일자 <인권하루소식>의 '양심선언 조정희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기사중 21일 조씨를 면회하면서 조씨의 아버지 등이 현병대에 끌려나갔던 것이 아니라 조정희씨가 끌려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알 림 ◆

□제28차 민가협 목요일회

일시 : 24일 오후 2시, 탑골공원앞
주제 : 창작·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